

여수시, 저소득 가구에 ‘코로나19 극복, 희망 박스’ 전달

후원자들 성금 모아 만 18세 미만 자녀 둔 885 가구에 희망 전달

식료품 19종 · 생필품 6종 조합 총 25종 10만원 상당 물품 채워

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·중·고등학생 3차 개학 연기로 가구 내 주부 식비 및 생활비 지출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‘희망 박스’를 전달한다. 여수시에 따르면 8일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직원, 활동지원사 등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‘코로나19 극복, 희망 박스’ 포장

행사가 열렸다. 희망박스는 제육덮밥, 김, 카레, 라면 등 식료품 19종과 샴푸, 린스, 치약, 플티슈 등 생필품 6종을 포함, 총 25종 1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채워졌다. 희망박스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국민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885세대에 택배로 전달할 예정이다. 금번 희망박스는 코로나19

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역 주민을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을 기탁한 대상건설, (유)KMT, 시경아스콘, 민주평통 여수시협의 회, 황소개장의 후원금 총 9천만 원으로 마련됐다. 권오봉 여수시장은 “초·중·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인한 조유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정성껏 희망박스



를 만들었다”면서, “귀중한 성금을 기탁해 주신 후원처와 봉사자에 감사드리며, 시에서도 코로나19의 예방 관리와 긴급 민생지원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하루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

다”고 말했다. 그동안 여수시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, 기관,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약 3억 3900만 원의 후원금품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탁돼 저소득

주민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다. 이외에도 여수 곳곳의 개인, 기업에서 자체 수제 면 마스크 제작 및 방역용품을 구입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남모르는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. 여수=김도현 기자

하누리장애인복지회, 코로나19 극복 지원물품키트 제작

영광사랑 마음나눔 캠페인...발달장애인 100여명에 비대면 전달



하누리장애인복지회(남궁경문회장)는 지난 8일 ‘영광사랑 마음나눔’ 캠페인으로 영광군 내 발달장애인 총 100여명에게 코로나바이러스(코로나19) 위기극복 지원물품키트를 제작해 전달(비대면 방식)하였다 밝혔다. 이 행사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흥농, 하누리

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가정을 위해 지원한 예산과 하누리복지회가 지원한 예산 및 롯데슈퍼(흥농지역)의 후원을 받아 방역·식료품(식료품, 과일, 간식, 생활용품 등 10여종의 다양한 물품)등 맞춤형 키트를 제작하여 흥농센터 하누리센터 이용자는 물론 영광군청

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거주하는 재가 발달장애인들에게 배분했다. 김준성 영광군수,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상균 사무처장, 해뜨는집, 예그리나 보호작업장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서비스 공백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행사였다.

이번 행사를 주관한 하누리장애인복지회 남궁경문 회장은 “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장애인이용시설의 무기한 휴관 및 외부 활동이 통제가 되면서 경제적, 심리적으로 지쳐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영광군내 발달장애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”라 뜻을 전했다. 영광=서희권 기자

광양시,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 모집

오는 12일까지 접수, 8개월간 매월 8만 원 수강료 지원

광양시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. 신청 대상은 만12세에서 만49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

인으로,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www.dvoucher.kspo.or.kr) 또는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. 장애인스포츠강좌는 5월부터 시행되며, 장애인 스포츠(빙상, 헬스, 수영 등) 시설이

용 시 매월 8만 원까지 8개월간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. 정현동 체육진흥팀장은 “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

화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, 더봄학생 가정방문

위생용품 등 전달

화순교육지원청(교육장 최원식)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은 화순경찰서와 연계하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으로 휴업 중인 더봄학생 가정에 방문해 위생용품 등을 전달했다. 이번 가정방문은 총 14가정(더봄학생 및 저소득 가정)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휴업 연장에 따른 특수교육대상

학생의 감염 예방과 위생수칙 안내, 거주지 및 주변 환경을 점검했다. 사전에 학교와 연락하여 학부모 동의 후 가정방문을 실시하였고 원하지 않는 경우는 비대면으로 물품을 지원했다. 방문가정의 학부모는 “위생 및 환경기 건강관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해 주셔서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.”고 전했다. 최원식 교육장은 “더봄학생 가정방문을 통해 코로나19 감



염병 예방과 위생관리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장애학생 인권 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.”고 전했다. 화순=박순철 기자

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

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.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.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.

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.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.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부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.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.

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군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?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.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.

